

“1년 겨우 버텼는데 악몽 또”...인근 상인들 ‘망연자실’

무더기 확진 TCS국제학교 등
광주 관련 교육시설 둘러보니

“지난해 첫 확진이후 장사 망쳐”
한꺼번에 확진 쏟아지자 분통
“검체 채취 후 거리 확보하고
예배 댄 차로 신도들 실어날라”
남구·서구 교육시설 등 문 닫혀
실태 파악 못한 방역당국 원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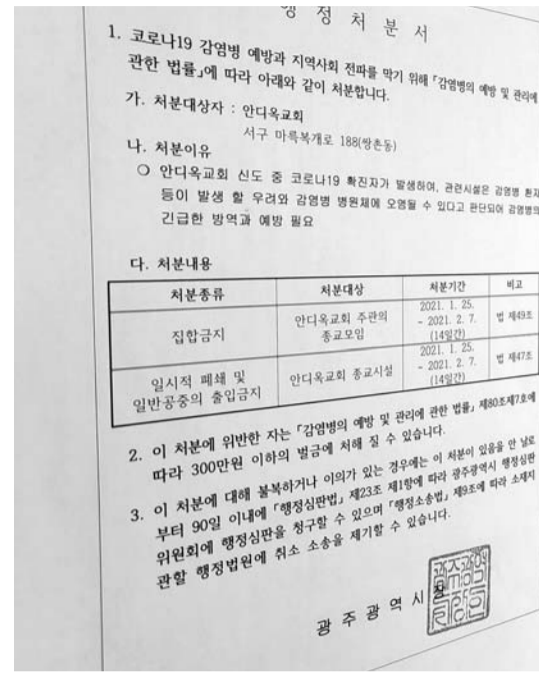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인 광주시 남구 진월동 TCS 국제학교(왼쪽)와 광주시 서구 쌍촌동 CAS 국제학교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광주 TCS국제학교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확진자를 이송하려고 물려든 경찰·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북적거렸고 혹시나 바이러스를 옮을까 하는 생각에 주민들 모습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전문가들은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 국제학교의 집단 감염의 배경에 밀집·밀접·밀폐의 이른바 ‘3밀(密)’ 환경과 방역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점검이 낱은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4층 건물의 2·3층을 사용하고 있는 운남동 국제학교는 2층의 6개 방과 3층 전부를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했다. 2층 기숙사 한 방에 10명 가량이 합숙 생활을 해왔다는

계 방역 당국 조사 결과다.

낮 12시에 전세버스 3대가 국제학교 인근에 도착했다. 학교 현관문이 열리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교사 등이 30여명씩 우르르 몰려나와 버스로 옮겨졌다. 7살 남짓한 학생이 자기 몸보다 훨씬 커다란 방역복을 바닥에 질질 끌며 버스에 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학교 주변 상인들도 허탈해하고 있다. 1년 전 인근 병원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손님 발길이 뜸 끊기는 등 직격타를 맞았던 악몽을 다시 경험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에 ‘코로나 공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던 이번엔 하루 100

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역사회를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주변 상인들 분위기다. 10년째 인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배모(43)씨는 “모두 지친 상황에서 1년을 버텼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니 이제 주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원망도 터져나왔다. 원격 수업을 하는 가 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중인데도,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단체로 합숙하고 있는 실태조차 파악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확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 격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네를 돌아다녔다”면서 “어제만 해도 수십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 뒤 건물 밖을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광산구 TCS 건물 옆 건물도 학생들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캐리어 등이 쌓여있어 또다른 기숙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보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광산구 외에도 TCS 국제학교는 광주시 남구 진월동, 서구 쌍촌동, 북구 신원동에 들어섰다. 이날 찾아간 광주시 남구 IM선교회 관련 광주교육시설인 ‘티콘 TCS 국제학교로 진입하는 건물 입구는 굳게 닫혀있었다. 이 학교에는 인근 교회 목사와 장로의 자녀 4명이 수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평

소 초등학교 3-4명이 교회를 오가곤 했다”며 “예배가 있는 날에는 교회 관계자가 승합차를 이용해 신도 20여명을 실어날랐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안다옥 교회도 시설 폐쇄를 알리는 문서가 붙어있었다. 교회는 내부에 IM선교회 교육시설을 운영해왔다. 안다옥교회에는 지난 24일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 신도 550여명을 상대로 한 방역당국의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북구 신원동의 TCS에이스국제학교에서 도 3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남편 구속 막아 주마’ 돈만 챙긴 사기범 때문에... 남편 구속되고 피해자와 합의 안돼 결국 실행까지

판·검사 등에게 청탁,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의 구속을 막고 피해자와 합의해 주겠다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행이 선고됐다. 이 30대 남성 등에게 속은 여성은 1억원 가까운 돈을 건넸지만 남편은 구속됐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실행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99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하순 B씨 등과 공모,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검사 2명에게 청탁해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700여만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또 C씨측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들어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7300

여만원을 받아 가로챘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면허 없이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구속될까 불안해하고 구속된 이후에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는 C씨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속여 10여차례에 걸쳐 1억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말과 달리, C씨 남편은 구속됐고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C씨에게 위조한 합의서·탄원서를 보냈는데 C씨가 이를 믿고 피해자측에 감사를 표시했다가 피해자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속아 1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었고 항소심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룰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측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절도사건 무마 대가 금품 받은 경찰 징역 2년 구형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전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A 경위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노래방 운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

개월을 구형했다. A 경위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베니스의 상인” 중 심판관 포사의 말을 인용, “정의만을 내세우면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다”며 “자비로 완화된 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요청했다. B씨 변호인도 “처음부터 무마의도는 없었다”면서 “공기업 직원이 자격정지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당면퇴직 사유가 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춘재 연쇄살인’ 억울한 옥살이...보상금 25억 청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 임금(8시간 근무)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은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 임금(8시간 근무)

은 6만8720원.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해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여기에 윤씨가 지난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격방 되기까지 구금 일수 7326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책정했다는 것.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동구 대인동, 싼 땅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구, 14평) 오피스텔 허가 유
- ▶ 지하 1층 공사 중,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문의. 010-3605-500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프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